



어른을 위한 학교 풀리지 않은 문제의 해답 찾아 나선다

수월하게 풀리는 인생은 없다. 살다보면 강의실에서 배운 적도, 시험으로 풀어본 적도 없는 문제들에 직면한다. 전쟁 같은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거나 은퇴할 나이가 되면 나는 누구인지, 왜 태어나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머리가 복잡해진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어른들이 또다시 학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금부터의 공부는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학무지경(學無止境), 배움에는 끝이 없다. '어른을 위한 학교'에서 또다시 배움의 길을 떠난 어른들을 만나본다.

글 신재우 기자·사진 임귀주 기자

인문학 공동체 배움의 길 위에서 나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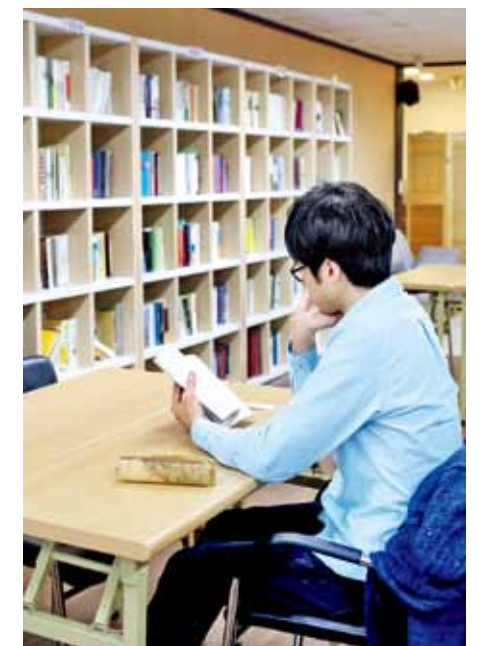
2월 14일, 일요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남산강학원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인문학 지식공동체 수유너머가 그 뿌리인 남산강학원은 '배움의 길 위에서 자신에게 묻고, 심신을 수련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목표로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는 공부방이자 강의실이다. 이날은 학원이 기획한 '2016 트랜순 맹자 강독' 수업 첫날이다. 맹자 강독은 전쟁의 시대에 부국강병의 길을 거부하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설파한 맹자의 '왕도정치론'을 원문으로 배우면서 크게는 한자로 형성된 중국의 문명사, 학술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다. 강독이 거의 일 년 내내 진행되고, 수강료(80만원)도 싸지 않지만, 스물여섯 명이 수강신청을 마치고 출석했다. 강독은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문학을 강의해 온 우응순씨가 맡았다. 교재는 조선 선조 때 만들어진 맹자 언해본이다. 첫 문장은 선 두 살의 맹자가 여든 한 살의 양혜왕을 만난 사건에서 시작한다. "孟子見梁惠王(맹자견양혜왕)하신대 王曰(왕왈) 叟不遠千里而來(수불원천리이래)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역장유이리오국호)인가" 강독은 원문을 먼저 읽고 뜻을 천천히 풀이해나가는 방식이다. 맹자께서 양혜왕을 보자 왕이 말하기를 "노인이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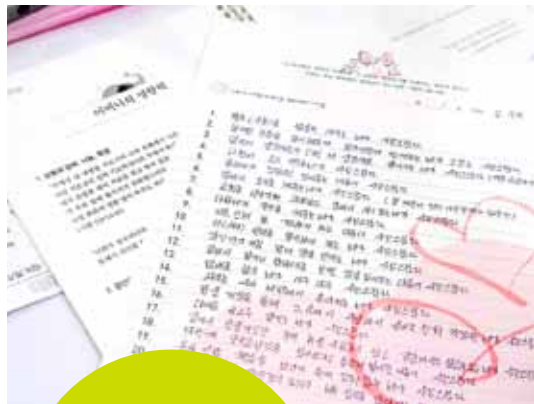
한문학자
우응순씨가 '트랜순 맹자 강독' 수업을 시작하면서 맹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문학 지식공동체 남산강학원에서는 '기획세미나',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인문학', 동양고전을 공부하는 '삼경스쿨', '글쓰기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독 수업은 문형을 파악해 해석이 수월해지면, 당대 문맥에서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파악하고, 동양문화사적인 의미를 짚어내고, 마지막으로 학생 나름의 설명구도를 갖추는 것으로 단계가 발전한다. 표정이 진지한 학생들은 전공자가 아니라 20대에서 60대 사이의 일반 대중이다. 처음 한문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남산강학원에서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장자, 노자 등 동양고전을 수년째 공부해 온 사람들이다.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재직년 은퇴했다는 안형선씨도 작년에는 장자, 올해는 맹자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다. 직장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때 즈음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깊어졌고 고전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의 베스트셀러가 50년 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고전은 세월을 이긴 책이고 맹자는 무려 2천300년 이상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고전을 탐구하면 내가 가졌던 질문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공부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실천했죠." 안씨는 이날 강독한 '養生喪死 無憾 王道之始也'(양생상사 무감 왕도지시야) 구절을 예로 들면서 "맹자는 그 옛날에 이미 정치가는 민생에 힘을 써야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고전에서 찾을 때 큰 만족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돈을 쫓으면서 아파트 평수 늘리기에 휩쓸려 있을 때는 그게 우스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 흐름에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허망한 일이지. 물신주의가 팽배하다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균형을 찾기 어려운데 공부하는 인생의 의미, 균형 찾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학교 변화와 행복의 관계 배우는 곳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일까.
누구나 행복한 아내, 건강한 어머니로 살아가
고 싶지만 많은 이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누군

가는 영영 출구를 찾지 못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삶의 지혜를 어디에서 얻고 있을까.

2월 11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두란노어머니학교'에는 위기에 처했거나, 잘못된 사랑과 관계를 바로 잡고 싶어 하는 어머니 수십 명이 참가했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17년 전에 시작됐고, 국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중국 호주, 루마니아, 미국 등 43개국에서도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수료생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다.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학교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되어 있다. 어머니학교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아버지학교, 신혼부부학교, 시어머니·장모학교에도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

어머니학교는 매주 1회, 총 5주간 진행된다. 참가자는 심리학, 여성학, 교육학, 아동학에 기반을 둔 강연을 듣고 글쓰기, 발표, 숙제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고 변화를 모색한다.

11일은 3주차 수업이 진행되는 날로, 이날의 주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었다.

참가자들은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권력형 어머니, 절제 없는 사랑을 주는 희생형 어머니, 조건부 사랑을 주는 자기도취형 어머니, 애정을 주지 않는 어머니는 자녀를 아프게 한다는 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별 모임을 통해 '지금까지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가', '자녀에게 기억될 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내가 내 자녀에게 하고 있는 잘못된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라는 주제에 대해 대화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과 듣고 싶어 하는 말 다섯가지 써보기', '어머니에게 편지 쓰기'를 하라는 숙제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주간 나는 건강한 여성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아내였는가, 어머니의 사명은 무엇인가 등을 스스로 질문할 시간을 갖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곳에서 만난 한선희씨는 "신학과 교육학을 공부했는데도 정작 내 가족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몰랐고, 처음에는 가정 문제로 이곳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 나온 덕분에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던 남편에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며 "내가 누구인지, 남자가 왜 다른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주었는지 성찰하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은경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장은 "예순이 넘은 어머니라도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성장해야 한다"며 "어머니학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도와주면서 여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예술학교 몰두와 소통 통한 치유의 경험



“사진을 좋아했고,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제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깊게 생각하게 하고, 행복과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사진을 계속 찍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인사동 동덕갤러리에서 열린 중앙대 인물사진콘텐츠전문가과정 수료전에서 올해로 일흔 두 살이 된 박민숙씨는 자신의 작품 앞에서 감격의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인물사진콘텐츠전문가과정은 인물사진 이론·실습 교육은 물론 인물사진이 가진 소통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예술을 통한 치유와 성취를 지향한다. 권태를 느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하는 퇴직자와 중년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수업이다.

이들은 노인 요양원과 장애인 재활원, 모델학과 강의실 등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처음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인물사진을 찍었다.

박민숙씨는 자신이 출품한 세 점의 인물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생의 멘토’다.

수료전을 준비하면서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던 사람들을 떠올렸고, 그들을 카메라 앞에 세웠다. 그는 심적으로 어려울 때 기적 같은 도움을 주었다는 정양모 신부, 독서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했다는 호원숙 작가, 그리고 헌신적으로 학생을 교육하면서 동료 교사인 자신에게 감동을 줬다는 조임순씨와의 인연을 관람객과 공유했다.

“현재 내가 행복한 것은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힘들 때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응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를 담은 사진을 선물할

중앙대
인물사진콘텐츠전문가과정
졸업생이 사진에 담은 '내 인생의
멘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시아머니와 장인, 투병 중인 노인,
부부의 사랑, 인디 밴드 등을 사진에
담아내면서 세상과 놀이를
시작했다.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찬란하고 신비로운 세상을 마음에 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하다 사진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은퇴한 후 여러 활동을 한 끝에 사진이야말로 나를 몰두하게 해주고,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갤러리는 졸업생의 사연이 담긴 다채로운 사진들로 가득했다. 한 작가는 그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해 웨딩 사진을 찍었고, 또 한 작가는 재활원에서 부부의 애틋한 사랑, 친구의 우정, 봉사자의 희생을 담아냈다.

백승휴 인물사진콘텐츠전문가 과정 주임교수는 중·노년의 성인들이 사진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사진은 소통을 전제하고, 절제의 미학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소통과 성취, 희열을 통해서 권태를 해소하고 응어리를 푸는 예술 행위에 대한 성인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해지는 어른 학교 큰 흐름은 인문학 공동체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 생긴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The School of Life)'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감성 지능'을 기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방송인 손미나씨가 교장으로 나선 이 학교는 일, 사랑, 관계, 죽음 등 인생을 살면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를 문화, 인문학, 철학, 심리학 등으로 풀어보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인생학교는 2008년 영국 런던 블룸즈버리에 세운 학교로 유럽, 남미, 호주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은 열 번째 분원이다.

강의 주제는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 '대화를 잘하는 법', '내 안의 리더십을 키우는 법',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법'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3시간짜리 강의가 매일 한 차례 진행된다. 수강생은 스무 명으로 제한하고, 강의료는 1회에 8만8천원이다.



1, 3 서울 이태원에 들어선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 서울캠퍼스는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2 종로 북촌에 있는 건명원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혁신적인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기존에 없었던 파격적인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오정택 두양문화재단 회장이 후원하고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와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가 의기투합해 만든 '건명원'이다.

시대의 반영자, 창의적 리더 배출이 건명원의 목표다. 안정된 사람을 뒤 흔들어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첫 과정이 진행됐고, 현재 2기를 선발중이다.

건명원은 19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성인 30명을 선발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총 40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4시간씩 인문, 예술, 과학 분야 수업이 진행된다.

최진석·배철현 교수와 함께 김개천(국민대 공간디자인학)·김대식(카이스트 전자전기공학)·김성도(고려대 언어학)·주경철(서울대 서양사학)·정하웅(카이스트 물리학)·서동욱(서강대 철학) 교수가 동참했다.

최진석 교수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않다"며 "모든 대학이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데 취업은 기존 시스템으로의 진입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건명원 1년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는데 결과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며 "어떤 과정으로 운영했는지 중요하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눈앞의 결과를 조급하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어른의 공부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흐름은 남산강학원과 같은 대중이 참여하는 인문학지식공동체다. 감이당, 대안연구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정암학당, 수유너머N, 문탁, 규문, 관문학당과 같은 공간이다.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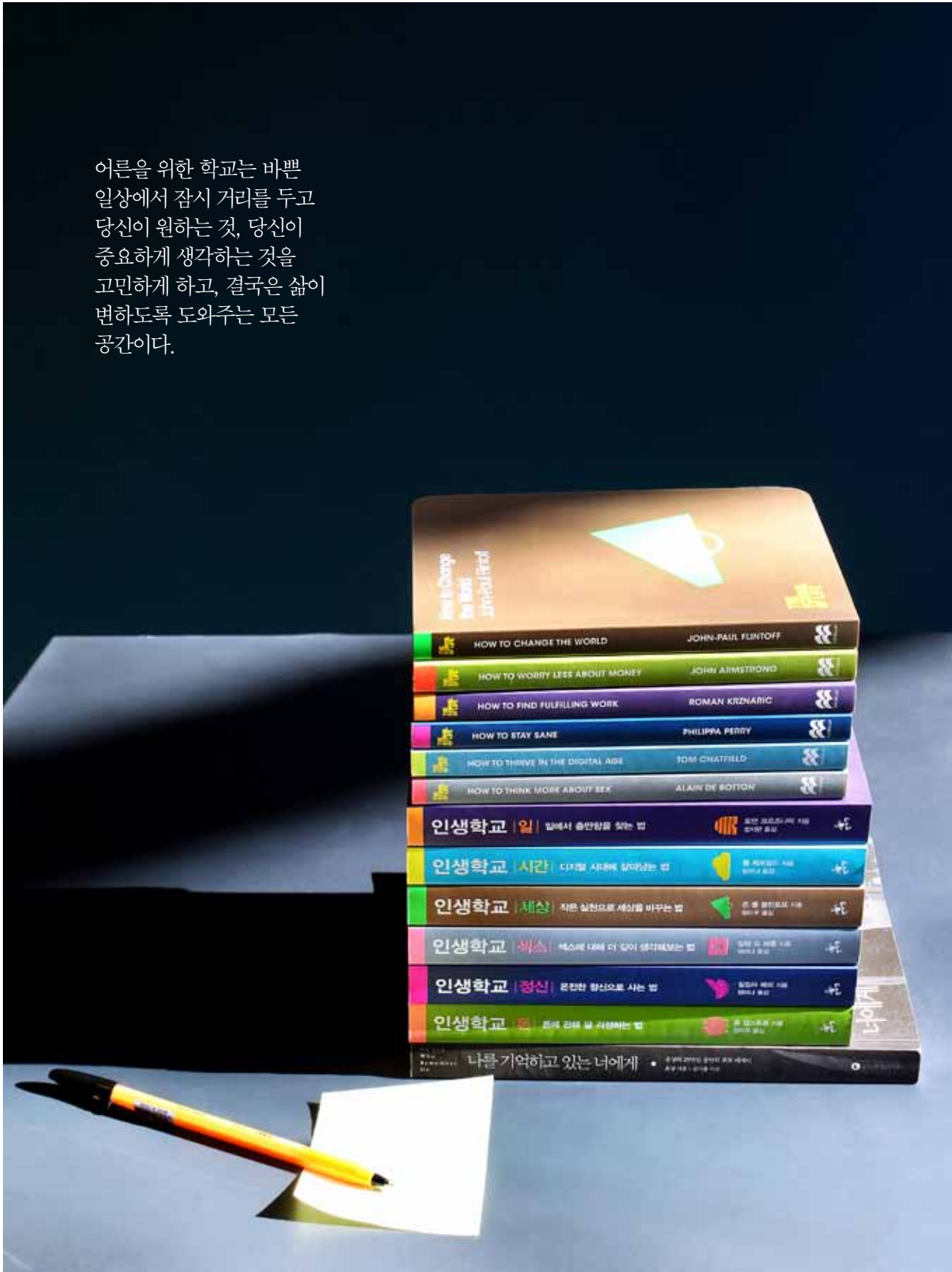
수가 수유너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긴 곳들이다.

성별, 연령, 직업이 다르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 공동체를 이룬다. 인문학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회성, 단기성 강좌는 물론 세미나와 글쓰기 등을 겸비하는 장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성환 남산강학원 연구원은 "인문학 공동체에서는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이 삶에서 자신과 결합되는 방식까지 고민한다"며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실천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실험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문학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강좌 시장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대 등 국내 유명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공개했다. K-MOOC는 공부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 개통 초기에 수강생 수만 명을 모아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어른을 위한 학교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고민하게 하고, 결국은 삶이
변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공간이다.



인문학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강좌도 인가다.
인문학 공동체에서 진행된 강좌를
교육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배우고자 하는 욕망, 삶의 변화 이끌어낼까

어른을 위한 학교가 생기는 것은 '성장하는 삶'을 갈망하는 성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계층이나 전문성 여부를 떠나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대학이 취업 관문으로 변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일등주의 경쟁으로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엄혹한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인문학 교육 웹사이트 '아트앤스터디'의 현준만 대표는 "잊고 살았던 나를 찾는 과정, 현상 이면을 보고 싶어 하는 공금증, 점수로 환산되지 않는 지혜에 대한 갈망이 제도 밖에서의 공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문학 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조정환 대표도 "기존 제도 안에서는 사람이 뭔지, 사회가 뭔지 알고 싶어도 질문을 할 길이 없었다"며 "자연스럽게 생겨난 질문 욕구가 제도 밖의 모임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자 하는 성인들의 탐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새로운 담론과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까. 아직은 미지수다.

인생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의 성인들은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인생의 벽에 부딪히면 또 다른 경험을 하거나 누구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며 "공부를 하면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보편타당성이 생기고, 이해력이 높아지겠지만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부 구경에 그치지 않으려면 삶 안에서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❶